

2019 국별 진출전략

브라질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2019년 1월 보우소나루 신정부 출범	4
나.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개시	5
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5
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영화 확대 지속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2. 시장분석	18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8
나. 수출	19
다. 투자	22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24
가. 교역	24
나. 투자	26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8
III. 진출전략	29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9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0
3. 한-브라질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8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42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44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45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47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전망

□ 2019년 브라질 경제, 신정부 출범으로 정치·경제가 안정세를 회복하면서 전년 대비 2.5% 상승 전망

- (정치) 2019년 1월 극우파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신정부 출범함
 - 2018년 10월 28일 열린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극우성향의 사회자유당(PSL)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가 득표율 56%로 좌파 노동자당(PT) 후보 페르난도 아다지(Fernando Haddad)를 제치고 브라질 38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 (경제) 4% 안팎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금리를 바탕으로 소비심리 부활, 산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2019년 브라질 경제는 2.5%대의 성장 예상
- (통상환경) 브라질 정부는 다양한 국가 및 경제 블록과 TA 체결 등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로컬 콘텐츠 의무도 완화하여 유리한 통상환경 조성
 - 2018년 5월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개시 및 9월 1차 공식 협상 실시
 - 다만 보우소나루 정부는 '다자협상보다 양자협상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한-브라질 무역협상'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
- (소비·수출) 2017년 소비지수(ICF)는 2년 연속 감소에서 벗어나 1% 증가, 위축됐던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음. 2018년 예상 수출액은 2,280억 달러, 수입은 1,6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 2019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재정건전성) 보우소나루 정부는 공공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 연금개혁, 정부 소유 부동산 매각, 정치인·공무원 특권 축소, 공무원 감축 등으로 재정적자를 완화한다는 계획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백만 명	193.9	202.7	204.4	206.0	207.6	208.9	N/A
명목GDP	십억 달러	2,464	2,455	1,796	1,797	2,055	N/A	N/A
1인당 명목GDP	달러	12,364	12,106	8,784	8,720	9,895	N/A	N/A
실질성장률	%	1.9	0.5	-3.8	-3.6	0.6	1.3	2.5
실업률	%	4.6	6.5	9.0	12.0	12.7	12.3	N/A
소비자물가상승률	%	5.84	6.41	10.67	6.29	2.91	3.69	4.03
재정수지(GDP대비)	%	2.39	-0.63	-0.8	-2.47	-1.69	-2.3	-1.8
총수출	백만 달러	242,580	225,101	191,134	185,235	217,739	219,967(1-11)	N/A
(對韓 수출)	"	4,501	3,831	3,122	2,881	3,077	N/A	N/A
총수입	"	223,149	229,154	171,449	137,552	150,749	150,749(1-11)	N/A
(對韓 수입)	"	9,097	8,525	5,420	5,448	5,239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19,438	-3,928	19,678	47,691	66,990	57,100	52,000
경상수지	"	-74,218	-104,181	-59,434	-23,530	-38,875	N/A	N/A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95	2.35	3.34	3.48	3.20	3.85	3.8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34	260	135	78.15	N/A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653	969	751	789	706	75,000	79,500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원: 중앙은행, 국가지리통계원(IBGE)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019년 브라질은 2018년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제38대 대통령 보우소나루가 이끄는 신정부가 출범함
- 시장에서는 차기 정부가 연금개혁 등 재정수지 개선 및 경제성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기대
- 물가상승률과 환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기준금리는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

가. 2019년 1월 보우소나루 신정부 출범

□ 보우소나루 신정부 최대 과제는 경제회복의 발판 마련

- 보우소나루 정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시킨 재정건전성 회복
 - 세계 10위권의 브라질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GDP의 약 11%를 차지하는 연금개혁, 약 1조 달러의 공공부채 감소, 다국적기업 투자유치 확대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 보우소나루 정부는 부처 축소를 통해 정부예산을 줄이고 공기업 민영화 계획 등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임
 - * 현재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7% 이상임

□ 분열된 의회와 민심 통합이 급선무

- 보우소나루 정부는 당면한 경제·사회 위기로 압박감을 느낄 것이나, 분열된 의회와 중도정당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역량 부족으로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보우소나루 당선인이 소속된 사회자유당(PSL)은 타협을 잘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다른 정당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연정이 반드시 필요

□ 균형 있는 대외정책 구사 필요

-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우소나루 신정부는 브라질 원자재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 모두와 우호적이고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친미 성향이 매우 강하며,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중국 및 아랍권에 대한 견제가 심한 편임
 - * 중국의 對브라질 투자 제한, 주이스라엘 브라질대사관 이전 발언 등으로 중국과 아랍권의 반감을 사고 있음

나.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개시

□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무역협정(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 개시함

- 2017년 3월 한국과 무역협정 대화 재개를 발표하였으며 관세감면 품목 리스트 작성 단계를 거쳐, 2018년 5월 무역협상 개시를 선언함
 - 2018년 9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1차 공식협상이 우르과이 수도 몬테 비데오에서 열림
- 메르코수르는 아직까지 주요국과 무역협정 체결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보유하고 있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남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증대가 기대됨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기존의 북미 및 일부 중남미 지역(칠레, 페루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남미까지 확대해 미주 지역 대부분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가 구축될 전망임
- 그러나 2019년 1월 출범하는 보우소나루 신정부는 ‘다자 관계’보다는 ‘양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한국과 브라질의 양자 관계를 긴밀히 하는 안도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 기업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노동법 발효

-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개정된 노동법이 2017년 11월 중순에 발효됨

- 1943년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노동법(CLT)은 70여 년 동안 계속 개정되었으나 상당부분 노동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었음
- 쉬운 해고, 노동조합 권한 축소, 노동소송 심사기준 강화, 노사간 보다 자유로운 근무시간 협의 가능, 아웃소싱 및 재택근무 가능 등 기업에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됨
- 대통령 당선자 보우소나루는 친기업 정책을 우선시하며 노동부와 다른 부처의 통폐합 추진 중. 노동부의 기업에 대한 견제 기능을 줄이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분위기

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영화 확대 지속

□ 재정적자 속 인프라 투자촉진을 위한 민영화 확대 추진

- 보우소나루 정부는 인프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프라부(Ministerio da Infraestrutura)’를 신설한다는 계획임
 - 이미 공사가 시작된 도로, 항만, 공항, 송전선, 수력발전소, 석유·가스 프로젝트 중 완공되지 못한 80여건은 보우소나루 신정부가 이어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의 경우 기술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이나 정부 예산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우소나루 정부는 민간투자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 보우소나루 정부는 인프라 건설사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중서부통합철도(Ferrovias de Integração do Centro-Oeste), 고속도로 BR-163 및 BR-319의 확충 등 그동안 부진했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재개가 예상됨
 - 수년전부터 추진 중이나 답보상태이던 ‘곡물운반철도(Ferrogrão)’ 건설 프로젝트, 타바조(Tabajo)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원자력발전소 앙그라 3호기(Angra III) 등도 신정부의 주요 사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뒤떨어진 인프라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약 5,000억 달러 상당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내 재정적자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환경 분석

- 신정부 출범으로 정치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19년 브라질 경제는 보다 긍정적인 전망
- 특히 노동법 개정,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이 점차 용이
- 한국의 경쟁력 우위산업인 자동차, 가전, ICT,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등도 회복세
- 브라질 비즈니스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

가. 정치 환경

□ 극우성향의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 2018년 10월 28일 열린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극우성향의 사회자유당(PSL)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가 득표율 56%로 브라질 42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 좌파 노동자당(PT) 후보 페르난도 아다지(Fernando Haddad)는 44%로 패배
 - 보우소나루는 북동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당한 표차로 아다지 후보를 압도함
 - 아다지 후보는 결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보우소나루 후보와 격차를 10%p 이내로 좁히는 데 성공했으나 이미 기울어져 있는 민심을 되돌리는 데 실패함
 - 기권(21%)과 무효(9.5%)를 포함하여 전체 유권자 1억 4,730만 명 중 약 1/3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됨

[2018년 대통령 선거 결과]

(단위: %)

순위	후보자명	소속	득표율
1	자이르 보우소나루	사회자유당(PSL)	56
2	페르난도 아다지	노동자당(PT)	44

자료원: 연방선거법원(STE), 정보 포털 사이트 UOL

□ 보우소나루의 승리요인

- 여론조사를 보면 보우소나루는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있는 반면, 거부감도 상당히 높은 후보로 분석됨. 그러나 잇따른 부패 스캔들, 경제위기, 치안불안 등으로 보우소나루가 대안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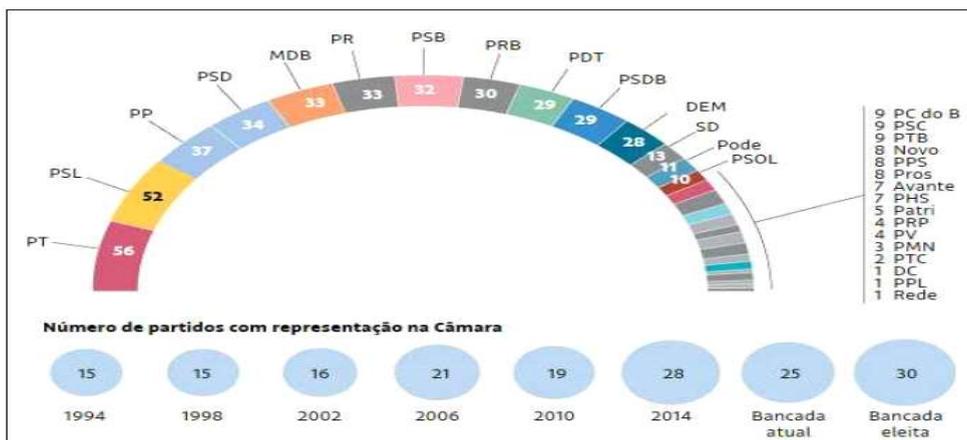
결국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짐

- 불과 1년 전만 해도 보우소나루는 인종,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독재정권에 대한 우호적 발언으로 논쟁을 일으켰으며 지지율이 10%대에 머물러 있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13년간 지속된 좌파 노동자당(PT)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극대화되며 ‘보우소나루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절대로 노동자당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였던 룰라의 출마가 무산된 점도 보우소나루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함
 - 3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던 룰라 전 대통령이 뇌물비리 혐의로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마가 불발되면서 노동자당 대선 후보가 룰라에서 아다지로 교체
 - 아다지는 룰라의 대선 러닝메이트였으며 과거 교육부 장관과 상파울루 시장을 지내는 등 정치경험이 많은 인사이나 국민들로부터 룰라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함
 - 테메르 정부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우파 진영에서 뚜렷한 대선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우파성향 유권자들이 보우소나루 지지로 돌아섬

□ ‘보우소나루 열풍’이 몰아친 브라질 정계

- 브라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원 선거에서도 ‘보우소나루 열풍’이 몰아쳤으며 연방 상·하원 의석에 구조 변화가 일어남
 - 브라질에는 35개의 정당이 활동 중이며 현재 집권당은 ‘사회자유당(PSL)’ 임
 - (하원) 이번 선거 후 집권당인 MDB는 33석으로 줄어들고 아다지가 속한 노동자당은 56석으로 제1당을 유지, 보우소나루 후보가 속한 사회자유당은 하원 제2당으로 급부상함. 전체 513개 의석 가운데 1석 이상을 보유하는 정당은 현재의 25개에서 30개로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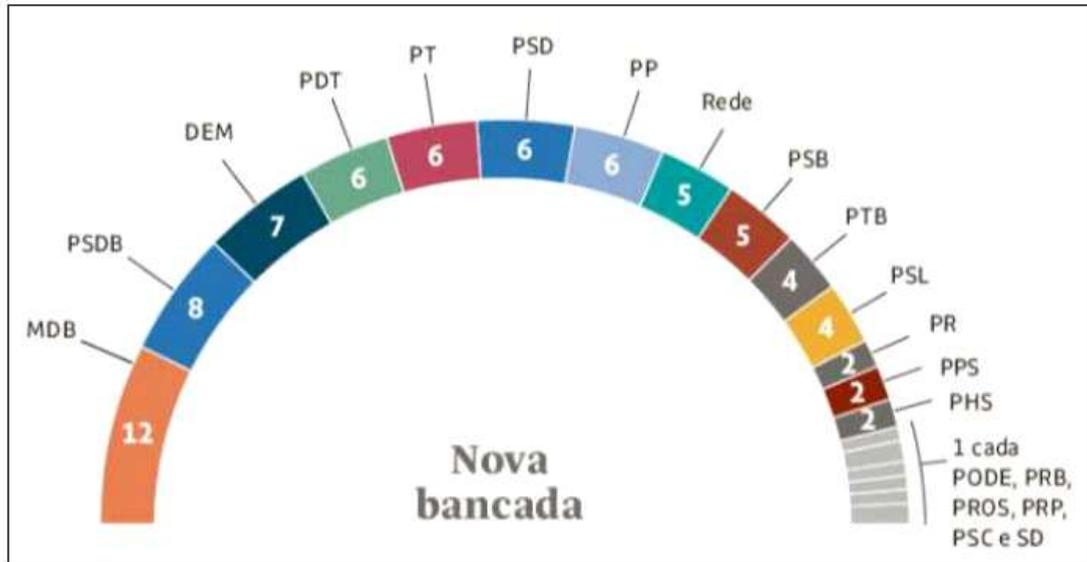
[연방 하원의석 분포]



자료원: 연방선거법원(TSE)

- (상원) 전체 81개 의석 가운데 1석 이상을 보유하는 정당은 21개가 됐으며 브라질민주운동(MDB)과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노동자당(PT) 등 기존 유력 정당의 의석은 모두 감소한 반면 보우소나루 후보가 속한 사회자유당(PSL)은 과거 의석이 없었으나 이번에 4석을 차지함

[연방 상원의석 분포]



자료원: 연방선거법원(TSE)

□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주요 공약

- (개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최대 현안인 연금개혁을 2019년 중 완수하겠다고 밝혔으며 2020년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세웠음
- 보우소나루 정부의 경제팀 수장은 '자유주의 경제' 철학의 신봉자인 파울루 게지스(Paulo Guedes)가 맡음
 - * Paulo Guedes :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게지스는 공기업 민영화와 연금·조세제도 개혁, 감세 등을 강력하게 주장
- (재정건전성) 공공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 연금개혁, 정부 소유 부동산 매각, 정치인·공무원 특권 축소, 공무원 감축 등으로 재정적자를 완화한다는 계획
- (고용확대)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2019~2020년 600만 개, 2021~2022년 400만 개 등 임기 4년간 1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목표 달성을 위해 관료주의를 줄이고 기업이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함

- (조세정책) 저소득층은 소득세 면제, 기업소득세 부담 감소 등 대규모 세금감면 정책 구사 예정
 - 개인소득 4,770헤알(1달러=3.7헤알) 이하는 소득세 면제, 4,770헤알 이상인 경우 20%의 소득세를 일괄 적용
 - * 소득세 감면으로 600억 헤알 상당의 세수가 줄어듦 전망이나 보우소나루는 증세를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 현재 34%인 법인 소득세는 20%로 하향 조정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대폭 덜어준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PIS/Cofins(사회기여세), Cide(경제기여세), IPI(공업세) 등은 통합 부가가치세(IVA)로 대체 추진
- (인프라 투자) 낙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군 장성 출신 인사를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계획으로 연기되거나 담보 상태에 있는 인프라 사업을 강한 추진력으로 밀어부치겠다는 의미로 분석됨
 - 2018년 브라질의 인프라 투자는 GDP 대비 1.7% 안팎
 - 브라질 국책연구소 IPEA는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서는 GDP 대비 투자비율이 앞으로 20년간 4.15% 정도가 돼야 한다'고 지적
- (민영화) 국가에 재정적 손해를 끼치고 있는 50개 국영회사를 민영화하거나 폐지할 예정
 - 약 150여개의 공기업 중 50개 기업을 취임 1년 내에 폐지할 예정
 - Eletrobras, Banco do Brasil, Caixa Econômica Federal 등 전략적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 Petrobras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추진 예정으로 핵심부는 정부가 운영
 - * 경제팀 수장 Paulo Guedes 는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 1조 헤알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 (치안 강화) 대선 공약을 통해 브라질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치안불안을 해소하는 방안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함
 - 형사처벌 연령을 현재의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
 - 군병력 활동을 늘려 경찰의 치안활동을 지원하고 개인의 총기 소유조건을 완화
 - * 개인 총기 소유조건 완화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상당한 반발 예상
- (대외정책) 보우소나루 당선인의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외정책으로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대만 등과는 관계 강화를 희망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시함
 - 이스라엘 주재 브라질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브라질 주재 팔레스타인대사관 폐쇄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아랍권의 반발을 유발
 - 보우소나루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투자를 일컫어 "중국이 브라질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언급하여 중국의 對브라질 투자제한을 시사함

나. 경제 환경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경제성장률) 2018년 1.3% 성장, 2019년 정치·경제가 안정을 찾으면서 성장률이 2.5%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8년의 경우 연초에는 2% 이상의 성장을 기대했으나, 두 달에 걸친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서 생산에 큰 차질을 빚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 1.3% 기록
- (환율) 선거가 끝나고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어 2019년에는 1달러 대비 3.75~3.80헤알 사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2018년 미국 경제지표 호진, 브라질의 정치적 불확실성 상승으로 인해 2018년 9월 헤알화 가치는 1달러당 4.18헤알까지 하락
- (교역동향) 신정부 출범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생산 및 소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9년 무역은 2018년에 이어 수출입 모두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중앙은행, 2019년 무역수지 520억 달러로 전망
 - 2017년 수출은 2,177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수입은 1,507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0% 증가. 무역수지는 최근 29년 만에 최고치인 670억 달러를 기록
 - 2018년 1~11월 수출은 2,991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으며, 수입은 1,683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함. 수출증가폭은 줄고 수입증가폭은 커지면서 2018년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감소한 571억 달러를 기록함
- (외국인 투자) 2017년 對브라질 외국인 투자액은 700억 달러이며 2018년은 670억 달러, 2019년은 약 7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브라질의 전통적인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미국,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이며 한국은 브라질의 제27위 투자국(2018년 1~7월 누적 기준)
 - 중국 기업들의 M&A를 통한 브라질 투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특히 전력 에너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수년간 브라질 투자를 외면해오던 미국 기업들도 2016년부터는 투자를 증가하는 추세
- (금리인하) 2018년 기준금리(SELIC)는 198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6.5%까지 하락
 - 그러나 2019년에는 브라질 정부가 물가상승률 억제 및 외국인 투자유치 제고를 위해 기준금리를 8%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

- 브라질 정부는 재정지출 동결, 노동법 개정,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
- (예산 동결) 브라질 정부는 과도한 정부지출과 공공부채 증가를 줄이기 위해 20년간 예산지출 확대를 실질적으로 동결함
- (노동법 개정) 기업의 노무부담 감소를 통한 사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동법을 개정함
 - 쉬운 해고, 노동조합 권한축소, 노동소송 심사기준 강화 등 친기업 성향의 노동법이 2017년 11월 중순에 발효됨
- (연금개혁) 정부 재원의 50% 이상이 연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재정 균형을 위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 이미 연금 수령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견고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

□ 회복세를 나타내는 브라질 경제

- 브라질 경제는 2016년 말을 기점으로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최근 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 이내인 3% 수준으로 안정을 찾고 있으며 실질 소득증가로 소비와 생산 증가
 - 2018년 경제성장률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물류대란 때문에 당초 기대치보다 낮은 1.3%의 성장을 기록함
 - 2019년은 민영화 프로젝트가 본격 진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증가 전망
- (생산) 2018년 상반기 화물연대 파업으로 차질을 빚었던 생산은 회복세로 전환했으며 2019년에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산업생산은 2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딛고 전년 대비 2.3% 증가
 - * 자동차 생산은 17.2%, 컴퓨터 장비 및 광학제품이 19.6% 증가
- (소비) 2017년 소비지수(ICF)는 2015년(-3.2%), 2016년(-4.35) 2년 연속 감소에서 벗어나 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위축됐던 소비가 증가
 - 2018년 9월 소비지수는 86.9로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13.2% 증가
 - *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수는 41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 100 이하는 소비부진을 의미
- (무역) 2018년 1~11월 무역수지는 51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연말에는 571억 달러를 기록함

- 2018년 예상 수출액은 2,280억 달러, 수입은 1,670억 달러
- (투자) 고속도로, 공항, 항만 터미널, 송전선 등 다수의 국유자산의 민영화 계획 발표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음
 - 2017년 친기업 성향으로 개정된 노동법이 발효되면서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

다. 산업 환경

□ 자동차산업

- 2018년 브라질에서는 27개의 다국적기업이 현지생산을 하고 있으며, 총 10개주 42개 도시에 65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이 중 GM이 8개 공장(부품공장 포함)을 가동, 가장 많은 생산시설을 보유
 - 브라질 순수자본으로 설립한 기업 Agrale와 피아트, 포드, 르노, 도요타, 혼다 등이 공장을 보유, 현대자동차는 2012년부터 공장을 가동
- 2013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던 브라질 자동차산업은 2017년 4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 기록
 - 자동차유통협회(FENABRAVE)에 따르면, 2017년 신차 판매량은 180만 대로 전년 대비 10% 증가. 2018년 1~8월 자동차 판매는 157만 4,894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하는 등 자동차산업 호조가 지속되고 있음
 - 자동차산업협회(ANFAVEA)에 따르면, 2017년 자동차* 생산대수는 269만 9,672대로 전년 대비 25.2% 증가함. 2018년 1~9월 기준 197만 대를 생산, 전년 동기 대비 12.8% 상승함
 - * 자동차: 승용차, 상용차, 트럭, 버스 포함
- 2013년 현지 생산을 시작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6년 판매 점유율이 10%를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GM, 폴크스바겐에 이어 승용차 부문 3위 업체로 부상
 - 현대 HB20 모델은 2017년 10만 5,549대가 판매되어 브라질 소형 자동차 시장에서 GM사의 Onix(18만 8,654대)에 이어 판매 순위 2위 기록
 - 기존에는 브라질의 Big 4로 분류되는 GM, 피아트, 폴크스바겐, 포드 4사가 총 차량 판매의 70% 가량을 차지해왔으나 최근에는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진출한 아시아 자동차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음
- 현지 생산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Rota 2030이 2018년 11월 상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됨
 - Rota 2030은 국산부품 의무사용, 제조공정의 현지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메이커에게 공업세(IPI)를 감면해주는 Inovar-Auto를 대체하는 정책

* Inovar-Auto는 WTO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인센티브로 판정받아 2017년에 폐지

- Rota 2030과 INOVAR AUTO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산부품의 사용기준 미준수 업체에 부과하는 추가 공업세 30%p가 폐지된 것임
- 동 프로그램은 실행기간이 5년인 Inovar-Auto와 달리 15년간 실행될 예정이며, 세 단계로 나누어 실행될 예정
 - * 1차 프로그램은 2019년 부터 2023년 까지 실시 예정
- 동 프로그램은 자동차부품 밸류체인 조정, R&D 및 엔지니어링(연결성, 선진 제조 포함), 에너지 효율 및 모터리제이션 신기술, 자동차 안전, 프리미엄 자동차 생산 또는 소량 자동차 생산, 경쟁력 있는 통합을 위한 비용구조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됨

□ 가전제품

- 약 2억 인구(4천만 가구)의 브라질은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의 1.5%를 점유
 - 브라질 가전시장은 미국계 Whirlpool, 유럽계 Electrolux, 멕시코계 Mabe 3사가 70%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Whirlpool사의 Brastemp와 Electrolux는 브라질 백색가전 '톱 2 브랜드'임
 - 브라질에서 소비되는 가전제품의 약 20% 이상은 수입품이며 이 중 70%가량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임
 - 장기 할부판매 등 가전제품의 구입조건이 다양해지면서 저소득층의 구매도 늘고 있는 추세임
- 삼성전자, LG전자가 브라질에서 휴대전화, TV, 노트북 등을 생산 중이며 상위권의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 중
 - 조립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현지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부품 수출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 ICT 산업

- 컨설팅업체 IDC에 따르면 2018년 브라질 ICT 시장은 전년 대비 약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IT 시장은 전년 대비 5.8%의 성장 예상
 - 브라질 ICT업체협회(BRASSCOM)와 컨설팅업체 IDC에 따르면, 2017년 브라질 ICT 시장규모는 1,466억 달러(생산 기준)로 전년 대비 9.9% 성장했으며 GDP의 약 7.1%를 차지
 - 2017년 브라질 ICT 시장은 서비스(42%), 소프트웨어(23%), 하드웨어(18%), 커넥티비티(17%)로 구성
 - 2018~2021년 인공지능, 빅데이터, Data&Analytics, 사물인터넷(IoT), 정보보안등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야에 대한 투자예상액은 약 2,495억 헤알로 전망
 - * 사물인터넷(1,697억 헤알), Big Data&Analytics(560억 헤알), 정보보안(228억 헤알), 인공지능(11억 헤알)

- 2018~2021년 ICT 인프라 투자예상액은 4,288억 헤알로 전망됨
 - * 퍼블릭 클라우드(290억 헤알), 모바일·데이터 커뮤니케이션·초고속 인터넷(3,998억 헤알)
-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IoT 시장은 2018년 8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됨. 브라질 가정의 약 4%가 이미 IoT를 활용한 가전제품이나 보안장비 등을 사용하는 가운데, 2018년 가정용 IoT 시장규모는 약 6억 1,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ICT 제품 세금감면제도(Lei de Informatica)*, 기술혁신 투자기업 세금감면제도(Lei do Bem), 반도체 투자기업 세금감면제도(PADIS) 등을 통해 ICT 제품 생산 및 개발을 장려
 - 최근 ICT 제품에 대한 브라질의 각종 감세정책이 WTO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인센티브로 판정되어 향후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수입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 ICT 제품 세금감면제도 : ICT 관련 하드웨어를 현지에서 생산 시 공업세(IFI) 80% 감면, 생산뿐 아니라 R&D도 할 경우에는 100% 감면해주는 정책

□ 화장품 산업

- Euromonitor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브라질 개인위생용품·향수·화장품 시장 매출은 321억 달러로, GDP 대비 화장품 시장규모로 세계 1위임
 - 브라질 화장품 시장 매출은 전 세계 4위 규모(6.9%)로, 대부분 제품류 매출이 세계 상위권 차지
 - * 2위: 데오도란트, 향수, 남성미용제품, 선크림 / 3위: 구강용 제품, 아동용 제품, 헤어용 제품 / 4위: 목욕용 제품 / 5위: 메이크업 제품, 제모제 / 8위: 스킨케어 제품
 - 브라질 화장품 시장은 2017~2022년 6년간 약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브라질화장품산업협회(ABIHPEC)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브라질에는 약 2,700여개의 화장품 업체가 영업 중이며 이 중 1,600여개 업체가 상파울루를 비롯한 남동부 지역에 위치
 - 브라질 화장품 시장에는 국내자본으로 설립된 Natura, Boticario 등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 Unilever, Avon, P&G, L'Oreal, Johnson&Johnson 등 유명 다국적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브라질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Natura는 브라질 최대 화장품기업으로 시장점유율 11.7% 보유. 2위는 10.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Unilever임
 - * 1위: Natura, 2위: Unilever, 3위: Boticario, 4위: L'Oreal, 5위: Colgate Palmolive, 6위: Avon, 7위: P&G, 8위: Johnson&Johnson, 9위: Coty, 10위: Beiersdorf
- 2017년 브라질 화장품(HS Code 3304 기준) 수입액은 1억 7,814만 달러임
 - 브라질 정부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브라질 내 수입화장품 가격이 생산지 가격의 3배 이상인 경우가 많음

- 다수의 글로벌 화장품기업들은 이러한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브라질 내 생산 중이며, 소비자들도 국내 유통망이 아닌 국외 쇼핑을 통해 수입품을 구입함
 - 화장품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2017년 4,649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입, 전체 수입시장의 26%를 점유
 - * 2위는 프랑스(4,053만 달러), 3위 중국(1,427만 달러) 순임
 - 한국은 19위 수입대상국으로 93만 달러의 제품이 수입됨
- 유통구조
 - 브라질의 화장품 유통채널별 매출비중은 전문매장(37.8%)과 하이퍼마켓(31.6%), 방문판매(26.1%)가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온라인(2.3%), 전통시장(1.0%), 미용실(0.2%)이 잇고 있음
 - 전문매장과 온라인·모바일 매장이 전통적 유통채널인 방문판매나 전통시장 등을 통한 매출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화장품 전문점의 타겟 소비층은 소득 중상위층 소비자임. 대형마트나 약국을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은 주로 그 외의 소비계층임
 - 최근 동향
 - 색조 화장품에만 집중하던 소비자가 피부관리, 기초화장품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화장품 코너인 ‘Dermocosmetics’ 판매대에 진열되는 브랜드와 제품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 브라질에는 방부제나 기타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크루얼티프리(cruelty free)한 제품 또는 유기농·식물성 화장품 소비를 일컫는 ‘슬로우 뷰티(Slow Beauty)’를 추구하는 소비자 증가
 - 남성용 미용제품 및 서비스 성장, 채식주의, 자연보호, 의식 있는 소비(Conscious Consumption) 등의 트렌드를 반영한 화장품·개인위생용품 유행
 - 초고속 인터넷 대중화, 스마트폰 사용 증가, 배송기간 단축 등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크게 증가
 - * 세포라(Sephora) 등 오프라인 화장품 전문점도 온라인 판매에 집중

□ 의료기기 및 의약품

- 인구고령화에 따른 병원진료, 의료시술 횟수 확대에 따라 진단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의료산업협회(ABIMED)에 따르면 2030년까지 브라질 고령인구가 2011년 10%에서 2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혈압, 관절염, 녹내장 등 노인성 질환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국산 휴대용 진단키트(Point of Care)의 브라질 수출에 성공하는 등 한국제품이 브라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2016년 한국의 지카 바이러스 진단키트 공급업체인 젠바디(GenBody Inc.)는 브라질 국영제약사 바이아파르마(Bahiafarma)를 통해 수출에 성공함
 - 국내 생산이 부족한 백신(인체용 및 수의용), 프로바이오틱스 등도 유망

라. 정책·규제 환경

□ 노동법 개정, 로컬 콘텐츠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환경 개선

- (노동법 개정) 쉬운 해고, 노동조합 권한 축소, 노동소송 심사기준 강화, 노사간 보다 자유로운 근무시간 협의가능, 아웃소싱 및 재택근무 가능 등 기업에 유리한 노동법이 2017년 11월 중순에 발효됨
- (자동차산업 로컬 콘텐츠 규제완화) Rota 2030은 로컬 콘텐츠(국산부품 의무사용)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과하던 공업세(IPI) 추가분(30%p)을 폐지
 - 동 정책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자동차 안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와 관련된 R&D에 투자하는 업체에 감세혜택 제공
- (석유개발 관련 로컬 콘텐츠 규제완화) 외국 석유기업들의 주도적인 개발권 획득 가능, REPETRO(석유 개발장비의 무관세 수입제도) 규정의 기간연장, 로컬 부품 의무사용기준 완화 등 외국기업들의 브라질 유전 개발사업 참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간 인프라 민영화와 무역협정 체결 확대정책

- (민영화 확대) 보우소나루 정부는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50개 국영회사를 민영화하거나 폐지한다는 목표를 발표함
 - 약 150여개 공기업 중 50개 기업을 취임 1년 내에 폐지할 예정
 - 민영화를 통해 낙후한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인프라 사업 분야 외국인 투자증가 및 건설증장비 등 기계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무역협정 확대) 보우소나루 정부는 시장개방에 적극적이며 무역협정 체결 관세인하 등에도 긍정적이어서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통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2. 시장 분석

- 남미 최대 시장이자 남미 경제의 중심인 브라질은 방대한 자원보유국인 동시에 발달된 제조업 기반을 보유
- 민영화 확대 추진과 노동법 개정 등으로 투자진출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
- 한국-메르코수르 TA도 추진 중으로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 전망
- 브라질 진출 시 애로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남미의 최대 경제대국

- 브라질은 인구 2억 850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경제규모 면에서 전체 남미시장의 절반 수준임
 - 브라질의 국토 면적은 870만㎢로 남미 대륙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브라질 GDP는 약 2조 552억 달러로 남미 전체 GDP의 약 38.1%를 차지함

□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이 가장 발달돼 있어서 부품조달이 수월하고, 제조업 수준이 크게 뒤쳐진 인근 남미 국가로 수출이 용이함
 - 지리적으로 남미 10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압도적인 경제규모로 인근 남미 국가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큼
- 1995년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메르코수르(Mercosur) 경제 체제를 출범시켰으며, EU,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상 추진 중
 - 다자협상보다 양자협상을 우선하는 보우소나루 정부가 출범하면 회원국의 개별 협상을 허용하는 등 메르코수르 운영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친시장 정책, 민영화 추진

- 2016년 8월 친시장 성향의 테메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위기 완화를 위해 시장에 유리한 정책과 민영화 추진 확대 등 브라질 시장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2019년 출범 예정인 보우소나루 신정부도 이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친시장 정책) 친기업 중심의 노동법 개정, 기준금리(Selic) 인하, 로컬 콘텐츠 규제 완화, 관세 등 세금부담 감소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 (민영화 추진) 보우소나로 신정부는 국영기업의 약 1/3을 민영화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 공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낙후한 인프라를 민영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개선한다는 계획

나. 수출

□ 브라질의 최근 수출입 동향

- 2018년 1~9월 기준 브라질의 수출은 1,99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
 - 3대 수출대상국은 중국(+24.11%), 미국(+3.70%), 아르헨티나(-4.42%)로 중국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對아르헨티나 수출은 오히려 감소. 對한국(13위) 수출은 8.66% 증가
 - 브라질산 대두 수출의 약 80%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2018년 1~9월 기준 對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2% 상승
- 2018년 1~9월 기준 브라질의 수입은 1,3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56% 증가
 - 3대 수입대상국 중국(+34.52%), 미국(+13.32%), 아르헨티나(+17.53%)에 대한 수입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한국(5위) 수입액은 6.79% 증가
 - 경기회복으로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1~9월 자동차(HS Code 8703)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5.53% 증가했으며, 기계장비(HS Code 8479) 수입도 33.7% 증가
 - 달러화 환율이 상승하면서, 2018년 2/4분기부터 수입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2018년 브라질 경제는 1% 성장, 2019년은 2.5% 안팎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브라질은 내수규모가 커 수출의존도가 낮으며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높은 폐쇄적인 시장임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브라질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6%, 수입은 11.6%밖에 되지 않음

[GDP 대비 수출입 비중]

(단위: %)

	브라질	한국	멕시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수출	12.6	43.1	37.9	41.8	11.2
수입	11.6	37.7	39.7	42.8	13.8

자료원: 세계은행(2017)

□ 브라질의 국가·품목별 수출입 동향

- 수입
 - 브라질은 2017년 기준 중국(273억 달러), 미국(248억 달러), 아르헨티나(94억 달러) 순으로 수입을 많이 하였으며, 한국(52억 달러)은 브라질 5위 수입대상국임

[브라질의 국가별 수입 동향(2016-2017)]

(단위: 달러, %)

순위	국 가	2016 수입액	2017 수입액	2017년 비중	증감률 2017/2016
1	중국	23,363,994,789	27,321,484,387	18.12	16.94
2	미국	23,802,604,305	24,846,589,309	16.48	4.39
3	아르헨티나	9,084,493,810	9,435,191,875	6.26	3.86
4	독일	9,130,741,915	9,227,149,632	6.12	1.06
5	한국	5,448,584,294	5,239,961,289	3.48	-3.83
6	멕시코	3,528,088,065	4,238,051,090	2.81	20.12
7	이탈리아	3,702,610,786	3,958,366,982	2.63	6.91
8	일본	3,566,367,985	3,762,634,037	2.50	5.50
9	프랑스	3,678,510,821	3,723,089,675	2.47	1.21
10	칠레	2,882,017,389	3,452,614,937	2.29	19.80

자료원: 브라질 개발산업무역부(MDIC)

- 2017년 기준 브라질의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자동차, 연료용 오일, 자동차부품, 의약품, 나프타, 전자부품, 역청탄, 송수신기 부품, 염화칼륨 등임

○ 수출

- 브라질은 2017년 기준 중국(475억 달러), 미국(269억 달러), 아르헨티나(176억 달러) 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였으며, 한국(31억 달러)은 브라질 13위 수출대상국임

[브라질의 국가별 수출 동향(2016-2017)]

(단위: 달러, %)

순위	국 가	2016 수출액	2017 수출액	2017년 비중	증감률 2017/2016
1	중국	35,133,314,867	47,488,449,966	21.81	35.17
2	미국	23,155,738,824	26,872,631,189	12.34	16.05
3	아르헨티나	13,417,339,572	17,618,822,550	8.09	31.31
4	네덜란드	10,322,786,852	9,252,264,969	4.25	-10.37
5	일본	4,604,146,067	5,263,291,829	2.42	14.32
6	칠레	4,080,526,602	5,031,366,706	2.31	23.30
7	독일	4,860,766,756	4,911,018,150	2.26	1.03
8	인도	3,161,432,097	4,657,327,590	2.14	47.32
9	멕시코	3,813,037,793	4,514,104,147	2.07	18.39
10	스페인	2,604,249,965	3,813,820,988	1.75	46.45
13	한국	2,881,006,714	3,077,014,473	1.41	6.80

자료원: 브라질 개발산업무역부(MDIC)

- 2017년 기준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제품, 원유, 대두, 설탕, 커피콩, 닭고기, 쇠고기, 목재펠프, 옥수수 등임

□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 2018년 10월 기준 브라질은 총 175건의 반덤핑 수입규제를 시행함
 - 국가별 반덤핑 규제는 중국(56건), 미국(14건), 한국(11건), 독일(10건), 대만(9건), 멕시코(8건), 인도(7건), 태국(5건) 순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는 승용차 타이어, 철강제품, 아르지, 유리류, 옥살산, 플레이트, 고무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10월 기준 브라질의 對한 수입규제는 전체 11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이며 이 중 1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3건, 화학 3건, 전기전자 1건, 섬유 2건, 기타 2건임
 - 조사 중인 니트릴 고무에는 임시 반덤핑 조치 적용

[對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나일론사 (Nylon Synthetic Filament Yarn)	5402.3111 5402.3119 5402.4523	반덤핑	2012.7.9	2013.12.27	섬유	- 2018.12.27 종료 예정 · 효성: US\$ 156.32/t · 코오롱: US\$ 338.10/t · 태광: US\$ 163.25/t · 기타: US\$ 3,224.91/t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 (Pneumatic Tires for Trucks and Buses)	4011.2090	반덤핑	2013.6.10	2014.11.24	기타	- 2019.11.24 종료 예정 · 금호 타이어: US\$ 317.77/t · 한국 타이어: US\$1,794.73/t · 기타: US\$2,031.31/t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Flat-rolled Stainless Steel)	7219.3200 7219.3300 7219.3400 7219.3500 7220.2094	반덤핑	2012.4.13	2013.10.4	철강 및 금속	- 2018.10.4 종료 예정 · 포스코: US\$ 267.84/t · 현대: US\$ 267.84/t · 기타: US\$ 940.47/t
승용차용 타이어 (Tire)	4011.1000	반덤핑	2011.12.29	2014.1.16	기타	- 2019.1.16 종료 예정 · 한국타이어: US\$ 0.24/kg · 금호타이어: US\$ 0.61/kg · 넥센타이어: US\$ 0.14/kg · 기타업체: US\$ 2.56/kg
압연실리콘철강 (Flat-rolled Product Silicon Steel)	7225.1900	반덤핑	2011.4.19	2013.7.17	철강 및 금속	- 2018.7.17 종료 예정 · 포스코: US\$ 132.50/t · Kiswire: US\$ 132.50/t · 기타: US\$ 231.40/t
염화비닐수지 (PVC: Polyvinyl Chloride Resins)	3904.1010	반덤핑	2007.9.21	2008.8.29 2014.8.15 (일몰재심)	화학	- 2014.8.14 적용기간 연장 (2019.8.14 종료 예정) · LG 화학: 2.7% · 기타: 18.9% * 한화화학: 반덤핑 적용제외
타포린 (Tarpaulin, PVC Coated fabric)	3921.9019	반덤핑	2015.3.23	2016.6.24	섬유	- 2016.6.24 최종 판정 (2021.6.24 종료 예정) · 한화: US\$ 0.93/kg · Starflex.: US\$ 0.29/t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 한국 3M: US\$ 0.32/kg · 일신: US\$ 0.32/kg · 원풍: US\$ 0.32/kg · 기타: US\$ 0.93/kg
페라이트 자석 (Ferrite Segment magnet)	8505.1910	반덤핑	2014.6.16		전기전자	- 2020.5.4 종료 예정 · Ugimag Korea: · US\$ 2,461/t · Dong-A Electric/Pacific Metals : US\$ 117.38/t · 기타: US\$ 2,461/t * 쌍용: 반덤핑적용 제외
평판압연제품 중 후판 (Heavy Plate Steel)	7208.5100 7208.5200	반덤핑	2012.5.3	2013.10.3	철강 및 금속	- 2018.10.3 종료 예정 · 포스코: US\$ 135.08/t · 현대: US\$ 135.84/t · 기타: US\$ 135.84/t
폴리프로필렌수지 (Polypropylene Resin)	3902.1020 3902.3000	반덤핑	2013.3.19	2014.8.27	화학	- 2019.8.27 종료 예정 · LG 화학: 3.2% · 롯데화학: 2.4% · GS Caltex/효성/삼성 2.6% · SK 화학: 6.3% · 기타: 6.3%
니트릴고무 (NBR)	4002.59	반덤핑	2017.6.26	-	화학	- 현재 조사 중 - 2018.3.2~9.2 6개월간 임시 반덤핑 조치 적용 · LG화학: US\$ 0.23/kg · 금호 타이어: US\$ 0.45/kg · 기타: US\$ 0.45/kg

자료원: 통상개발산업부(MDIC)

다. 투자

□ 최근 투자진출 동향

- 2017년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603억 4,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125억 8,800만 달러), 자동차 분야를 제외한 상업(55억 300만 달러), 운송(42억 1,900만 달러), 자동차·트레일러(39억 5,200만 달러) 등의 분야에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우리나라의 對브라질 투자 신고건수는 50건, 투자 신고금액은 5억 1,021만 달러이며, 실제 투자금액은 4억 5,895만 달러로 나타남*
 - 2017년 일본의 對브라질 투자금액은 5억 3,700만 달러, 중국의 對브라질 투자금액은 6억 4,300만 달러로 나타남**
- * 투자 신고금액은 각 신고서 기준 투자 예정금액이며, 실제 투자금액은 각 송금보고서 기준 실제 송금된 금액으로 집계
- **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기업 간 자본투자(Intercompany Investment)를 제외한 자본 투자부분(Capital Investment) 유입액만 집계된 금액임

□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

- 브라질 시장 진출 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사항은 복잡한 조세제도와 통관정책,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관행 및 잦은 파업, 노무관리 애로, 물류 부족 등으로 이를 통칭하여 '브라질 코스트'라고 부름
- (복잡한 조세제도) 약 80개 이상의 조세규정과 복잡한 과세방식으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음
- (통관절차) 세관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지연이 빈번하며 주에 따라 이중 통관제도를 하는 경우도 있음
- (관료주의) 지나친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법인 설립을 비롯하여 각종 업무처리가 지연됨
- (잦은 파업) 세관, 은행, 경찰 등 주요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잦은 파업으로 일정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물류 부족) 철도망이 발달되지 않아 도로운송이 전체 물류의 70%에 해당. 운송 인프라 부족으로 높은 물류비용 발생
- (보호주의 무역) 자국업체 보호를 위해 강력한 수입규제 정책을 실시하는 품목이 많으며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의 위험이 늘 따름

○ 현지 진출기업의 운영상 애로점

- (영주비자 취득) 영주비자를 발급받아야 현지 경영이 가능한데, 60만 헤알 이상을 투자하면 별도의 의무조건 없이 1개의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음*
 - * 2015년 10월 개정된 투자법에 따른 내용이며, 2년 내 고용 10명이 가능한 경우 50만 헤알 투자 시 또는 기초·응용분야 과학기술 R&D 분야일 경우 15만 헤알 투자 시 1개의 영주비자 획득 가능
- (현지 직원 고용의무) 브라질 노동법상 외국기업이 현지 직원 고용 시, 임금의 총합 또는 직원 수 총합의 2/3를 브라질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나머지 1/3은 외국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치안 불안) 상파울루, 리우 등 대도시 치안이 불안하여 주재원들이 강도 또는 납치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현지 경영 및 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 (불규칙한 경기 사이클) 브라질의 경기지수가 단기적이고 불규칙한 사이클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장기투자계획 수립이 어려움
- (인증요구) 식품을 비롯하여 위생 및 건강과 관련된 제품은 예외 없이 ANVISA의 허가가 필요. 허가 취득기간이 길고 절차 및 서류 구비가 까다로워 기업들이 브라질 현지 투자를 망설이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가. 교역

□ 한국-메르코수르 TA 추진현황

- 2016년 8월 테메르 정부가 출범하면서 브라질의 TA 추진 확대계획을 밝힘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멕시코 및 EU와도 협상을 추진 중
 - * 남미공동시장 체결국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2019년 1월 출범 예정인 보우소나루 신정부는 다자협상보다는 양자협상을 선호하고 있어 '한-메르코수르' 대신 '한-브라질'로 협상이 전환될 가능성 존재
- 2017년 3월 한국과 무역협정 대화 재개를 발표하였으며 관세감면 품목 리스트 작성 단계를 거쳐 2018년 5월 무역협상 개시를 선언함
 - 2018년 9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1차 공식협상이 우르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림
 - 한-메르코수르 TA는 2004년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 남미 순방 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정상과 공동연구를 합의함에 따라 개시된 이후 2009년 제4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공동연구까지 이루어졌으나 이후 중지됨

[한-메르코수르 5대 교역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수출품목	금액	비중	수입품목	금액	비중
반도체	1,183	17.9	식물성 물질	1,264	28.0
자동차부품	722	10.9	철광	962	21.3
무선통신기기	701	10.6	곡식류	315	7.0
자동차	677	10.3	제지원료	296	6.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04	6.1	기호식품	218	4.8
5대 품목 합	3,687	55.8	5대품목 합	3,055	67.6
전체	6,603	100	전체	4,522	100

자료원: 무역협회

□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현황

-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MDIC)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은 52억 3,996만 달러, 수입은 30억 7,700만 달러임
 -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은 20위, 對브라질 수입은 27위이며 브라질의 對한국 수출은 13위, 對한국 수입은 5위를 나타냄
 - 2018년 1~9월 누적 기준 브라질은 한국으로부터 42억 2,812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입, 전년

동기 대비 6.79% 증가

- 한국은 주로 자동차, 차량용 부품,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을 수출하며, 농산물, 금속광물, 철강제품 등을 주로 수입함
 -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경쟁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양질의 제품을 수출해온 국가(중국, 대만, 베트남 등)와 고기술 제품 수출강국(미국, 일본, 독일 등)임
-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은 2011년 양국 무역 역사상 최고액인 118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16년까지 하락세를 지속하다 2017년 다시 성장세 회복
- 수출감소의 주원인은 브라질 경제침체 및 브라질 정부의 수입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공업세(IPI) 인상 때문임
 - 2017년에 접어들어 브라질 자동차 시장이 회복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

[브라질의 對한국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HS코드 (4자리)	품목명	2018년 1~9월 수입액	상위 5개 수입국 (1~5위순)
8542	전자집적회로	3,608.632	한국(1위),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8708	차량 부분품과 부속품	4,687.346	독일, 일본, 멕시코 중국, 한국(5위)
8529	수신기기 부품 (라디오, 텔레비전, 레이더용)	1,604.108	중국, 한국(2위), 대만, 베트남, 홍콩
8703	승용차	3,366.138	아르헨티나, 멕시코, 일본, 독일, 한국(5위)
8517	전화기	3,102.383	중국, 베트남, 미국, 한국(4위), 멕시코
8407	피스톤식 내연기관	346.564	한국(1위), 미국, 멕시코, 독일, 중국
3903	스티렌 중합체	230.626	한국(1위), 대만, 중국, 멕시코, 독일
3002	인혈(치료용, 예방용, 진단용)	2,445.371	중국, 미국, 스위스, 벨기에, 아일랜드, 한국(9위)
3822	실험실용 시약	328.287	미국, 한국(2위), 독일, 영국, 중국
8479	산업용 기계장비	732.012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이탈리아, 한국(6위)

자료원: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MDIC)

□ 對브라질 수출 성공사례

- 2016년 10월 바이오 벤처기업 (주)젠바디는 자체 개발한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진단키트 350만 개의 핵심 원료를 브라질 국영제약사 바이아파르마(Bahiafarma)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함
- (주)젠바디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20분 내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핵심원료 전량을 브라질 측에 3천만 달러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는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임

- (시사점) 브라질은 의료기기·제약품 인증(ANVISA)이 까다롭기로 유명함. (주)젠바디는 현지 의료공기업 바이아파르마와 협력을 통해 사전에 브라질 보건부 산하 위생감시국(Anvisa)으로부터 지카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생산·판매 승인을 받는 등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인증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함

□ 對브라질 수출 실패사례

- 한국기업 P사는 상파울루 무역관에 브라질 바이어 G사의 신용도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음. 무역관은 G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조사 진행 중 의심스러운 면이 많아 G사와의 거래를 만류함. 그러나 P사는 G사와의 거래를 강행했고, 결국 2천 달러 이상을 선납한 후 G사가 잠적하여 다시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함
- (시사점) 거래 전에 바이어의 신용도가 낮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강행하여 피해를 본 사례인 만큼, 신용을 보장하기 어려운 바이어와는 애초에 거래를 피하는 것이 상책임
 - Serasa* 신용정보사의 유료 서비스를 통해 바이어의 신용도를 확인해보는 것도 유효함
 - * Serasa 신용정보사 SITE : <https://www.serasaexperian.com.br/>

나. 투자

□ 우리나라의 투자진출 동향

- 2018년 6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對브라질 투자 신고건수는 총 1,061건, 실제 투자건수는 286건, 투자신고액은 총 93억 6,895만 달러이며 실제 투자액은 81억 2,711만 달러로 집계됨
 - 2017년 우리나라의 對브라질 투자 신고건수는 50건, 신규 법인 수는 6개사, 투자신고액은 5억 21만 달러이며 실제 투자금액은 4억 5,895만 달러로 나타남
- 한국의 對브라질 투자는 1995년 메르코수르 관세동맹의 공식출범을 계기로 1996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약 120개*의 한국업체가 진출하여 활동 중임
 - 약 120개의 한국 진출기업 중 절반은 자동차, 차량 또는 기계 부품 제조업(55개사)이며, 도·소매 유통(15개사), 서비스업(10개사), 금융·보험(7개사), 운송·운수(5개사) 등의 분야별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남
 - * 수출입은행(2017년 3월 기준)에 의하면 법인 신고 수는 총 278개사이지만 실제 현지에서 활동 중인 법인은 약 120개사인 것으로 파악됨

□ 한국기업 투자 성공사례

- LS Mtron은 농기계 생산업체로 브라질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3년 브라질에 진출했는데, 3년간의 '버티기 작전' 끝에 시장점유율 6.5%를 달성하여 2017년 흑자전환에 성공함
 - 2016년부터 브라질 농기계 시장이 반등하여 시장 수요가 30% 증가함
 - 2016년 이전 시장 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농기계 시장에 경기침체기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끝에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통해 흑자전환에 성공함. 동 사는 기존 생산제품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임
- (시사점) 동 사는 극심한 환율하락 등 경기가 불황일 때도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빠른 흑자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음. 또한 브라질 진출 시 입지조건으로 브라질 전체 트랙터 시장의 중심 지역이며, 주변 항구시설이 잘 갖춰진 산타카타리타(Santa Catarina)주 조인빌레(Joinville)시에 부지를 선정한 것도 주요 성공요인임
- 2009년 브라질 남부 상레오포우도 지역에 설립된 HT Micron은 브라질에 앞서 진출한 미국 및 대만계 반도체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반도체 제품을 삼성, LG와 브라질 기업에 공급하여 브라질 반도체 시장을 개척함
 - 2018년 매출 1억 달러 달성이 예상되며, 주요 반도체 재료, 장비를 한국에서 수입함으로써 한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
- (시사점) 브라질 정부 고위인사의 내방을 통해 선진 반도체 기술을 소개하는 등 브라질 정부와 밀접한 관계 유지 및 브라질 정부, 산학 간 협력체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여 브라질 정부와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현지 정부, 은행 투자유치에 성공

□ 한국기업 투자 실패사례

- 2014년 브라질에 진출한 A사는 기존 브라질 현지 바이어와 총판계약을 통해 브라질 시장에 진출 중이었음. 이후 시장 확대를 위해 생산설비 투자진출 후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시도하였으나 기존 총판계약을 체결한 바이어와 계약 문제로 수년간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음
 - 2014년부터 브라질의 경기침체가 시작되어 해당 업계도 직격탄을 맞아 A사는 수주 감소 및 생산 능력 감소를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함
- (시사점) 진출 이전 현지 경기상황과 시장여건, 기존 바이어와의 계약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미흡했음. 현재는 주력 제품 생산보다 사후 서비스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어 본격적인 시장공략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음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브라질의 對한국 농·축산물 수출

- 브라질 무역통상서비스부(MDIC) 통계에 의하면 2016년 對한국 식용육(HS Code 02) 수출은 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 중 99%가 닭고기로 나타남
- 브라질은 對한국 농·축산물 수출품목을 다양화하려고 노력 중이며, 양국 간 식품 안정성 심사 승인절차 간소화도 추진 중
 - 2017년 2월 한국은 브라질 상프란시스쿠 지역의 망고 수입을 허용하였으며, 2017년 5월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 지정 육류가공시설에 대한 수입을 조건부 승인함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상 추진 시 브라질의 전략 수출품목인 쇠고기의 자유화율이 중요한 것으로 예상됨. 브라질 측은 최우선 협상 대상품목으로 지정 예정

□ 한국의 IoT, 5G 기술협력 희망

- 2015년 4월 양국 간 체결된 '기술과학협력조약'에 따라서 2017년 3월 브라질 기술과학부(MCTIC)와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는 정보통신기술협력센터(CCTIC)를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주에 설립함
 - 전자제품 조립기업이 많이 입주한 Santa Rita de Sapucaí 산업단지에 IoT와 5G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됨
- 현재 브라질은 유선통신 위주의 인프라를 광대역 인터넷망으로 확대하는 중이며 2017년 브라질 기술과학부(MCTIC)는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과 컨설팅업체 McKinsey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사물인터넷(IoT) 정책(Plano Nacional de Internet das Coisas)'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해당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정보통신국(Anatel)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에는 광대역 인터넷 3,050만 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브라질 가정의 43.9%에 보급된 것으로 파악됨
 - 국가 사물인터넷 정책은 의료, 농업, 기간산업 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을 위한 액션 플랜(2018~2022년)을 마련함

III 진출전략

- 2019년 출범하는 신정부의 친시장, 대외경제 개방 확대 정책을 활용한 전략 수립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로 국산 화장품, 의료기기와 각종 ICT 제품 등의 신규 수출을 고려해 볼 만함
- 멕시코, EU 등의 FTA 네트워크 활용 및 민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계 기업들과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 모색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브라질 지역 SWOT 분석]

<p>강 점(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2억 850만 명의 남미 최대시장 • 충분한 외환보유고 •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다양한 제조업 기반 	<p>약 점(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미흡, 높은 세금, 부정부패, 관료주의 등 고비용 구조(Brazil Cost) • 과도한 재정적자로 정부의 투자여력 상실
<p>기 회(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생산 및 소비 증가 기대 • 신정부의 개방적 경제정책 기대 •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진행에 따른 양국 경제교류 확대 	<p>위 험(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자 해소에 필요한 연금개혁의 불확실성 •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폐쇄적 경제구조 • 헤알화 가치 불안에 따른 환리스크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남미 최대 소비시장이자 제조업 기반을 갖춘 브라질을 발판으로 남미공동시장 진출 확대	신정부의 친시장, 개방주의 정책 활용
ST 전략 (강점 활용)	• 자동차, 차량 부품의 친환경 기술 R&D 강화 • ICT(보안장비 등), 의료기기 등 기술 경쟁 우위 • 산업 중심의 진출 강화	기술 우위산업의 R&D 및 진출강화
WO 전략 (기회 포착)	• 소비력이 강한 A, B클래스(소득순위 12%)를 겨냥한 고부가가치 소비재 진출 강화 • 대규모 민영화 사업에서 참여기회 모색	고부가가치 소비재 발굴 및 확대
WT 전략 (위험 대응)	• 신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 중국의 對브라질 진출 확대를 기회로 역이용	신정부 성향에 따른 대응책 마련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가. 극우성향 신정부의 신경제정책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9년 1월 1일 출범 신정부, 친개방·친시장 정책 전개 기대
- 브라질과 메르코수르의 관계 약화, 양자관계 강화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극우성향 신정부, 친개방·친시장 정책 전개 기대
 - 신정부는 신자유주의 성향의 경제장관을 임명하고, 연금개혁, 국영기업 민영화, 감세 등 친시장적인 정책을 약속함
 - 2018년 1%대 성장에 그쳤던 브라질 경제는 2019년 2.2~2.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정부가 만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최대 과제인 연금개혁 등 주요 과제를 언제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
- 브라질과 메르코수르의 관계 약화, 양자관계 강화 전망
 - 대통령 당선인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가 사상적 집단으로 변질되었다며 공개 비난하고 다자관계보다 양자협정을 선호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신정부 경제장관 내정자도 메르코수르가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발언을 해서 파장을 일으킴
 - 메르코수르가 브라질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이기도 하지만, 신정부 체제에서는 메르코수르와의 관계가 약화되고, 국가 간 양자협력이 강조될 전망

□ 진출전략

- 한-메르코수르 관계 강화와 더불어 한-브라질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 2018년 개시된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한-브라질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접근 필요
 - 양국 간 교역뿐만 아니라, 쌍방향 투자진출, 공동연구, 다양한 계층의 기업인 교류 등 관계 강화 노력 필요

나. 자동차 생산 회복에 따른 부품 시장 진출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브라질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2017년 전년 대비 24% 증가한 270만 대를 생산했으며, 2018년에도 증가세 지속
- 로컬콘텐츠 규정이 폐지되었으나, 현지 생산에 대한 요구는 늘어남 추세
- 경기침체로 차량연수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이 빠르게 성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고율의 로컬콘텐츠를 요구하던 Inovar-Auto 정책 폐지 후, 친환경 기술과 안전을 강조하는 Rota 2030 정책이 2019년 내 시행 예정
 - Rota 2030 정책의 주안점은 (1) 에너지 고효율, (2) 차량 안전성, (3) R&D 투자, (4) 현지 생산 승인
 - * Inovar-Auto의 주안점은 (1) 로컬콘텐츠, (2) 현지생산, (3) R&D 투자, (4) 에너지 고효율 순이었음
 - Rota 2030은 2019년부터 시행되어 2030년까지 지속되는 정책이며, 2018년 11월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Rota 2030의 주요 내용

- (에너지 효율 및 안전성 강화)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에너지효율과 안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자동차 라벨링 프로그램(Programa Brasileiro de Etiquetagem Veicular)'을 준수하고, 2022년까지 연료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가감소 등 에너지 효율을 현재 기준보다 11% 향상시켜야 함
 - 운전자 및 탑승객의 안전과 사고 최소화를 위해 안전성이 강화된 부품으로 점진 교체해야 함
- (R&D 및 기술혁신 투자 인센티브) Rota 2030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투자금의 10.2% 상당의 금액을 법인소득세(IRPJ)와 기업이익세(CSLL)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투자대상이 국가발전에 이득이 되는 전략제품일 경우 법인소득세와 기업이익세에서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전략제품을 개발하거나 연구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은 감세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 전략제품: 첨단제조(advanced manufacturing) 4.0, 연결성(connectivity), 자동차 엔진 관련 신규 기술, 나노테크놀로지, 무인자동운전차량 및 관련 부품,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
 - 과거에는 브라질에서 생산이 안되는 자동차부품 수입 시 관세를 16~18%에서 2%로 감면해주었으나, 새 정책하에서는 2%로 감면된 관세를 조세당국에 납부하는 대신 사전에 승인받은 R&D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음

- 경기침체로 인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 2014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면서 브라질의 차량 연수는 2011년 12.9년에서 2016년 13.5년으로 늘어났으며,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은 2016년 22% 성장을 기록

- 브라질의 인구 1천 명당 차량 보유대수는 249대(미국 910대)로 성장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부품 시장의 성장 전망도 밝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단순 수출로는 시장확대에 한계, 합작투자, 기술제휴, 공동 R&D와 같은 다양한 협력방안 모색 필요
 - 로컬콘텐츠 규정이 없어졌다고는 하나, 브라질에 생산기반을 둔 완성차 메이커들과 Tier 1 기업들의 현지화 요구는 갈수록 증가추세이므로, 단순 수출만으로는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음
 - 단독투자 방식으로는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와 시행착오를 피하기 어려우므로,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투자, 기술제휴, 공동 R&D 등 다양한 진출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규정 준수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부품에 주목
 - Rota 2030은 에너지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부품을 교체하거나 추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 부품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길 전망임

[교체 또는 신규 도입 예정인 자동차부품]

교체대상 품목	Rota 2030에 따른 검토사항	비고
본넷	행인과 접촉사고 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본넷	**
엔진	터보 기능 및 direct injection 엔진	***
라이트	헤드램프에 주간주행등(DLR) 탑재	**
기어	자동 및 기계식 차량에 무단변속기(CVT) 설치	***
안전벨트	가운데 자리를 포함한 뒷자리 세 곳에 모두 안전벨트 장착	**
의자 목받침	자동차 시트에 목받침 장착	*
유아용 안전장치	유아용시트 고정장치(ISO FIX) 설치	*
바퀴	자동차 바퀴에 능동적 안전 시스템(ESP) 설치	*
운전장치	차선 이탈 감지장치	**
브레이크	자동비상 제동장치 설치	**

주: * 의무사용 확정, **의무사용 검토 중, ***연료절감을 위해 도입 고려 중인 기술

자료원: Jornal do Carro - Estado

- 브라질 시장에 맞는 부품 포트폴리오를 구성, 주요 도시에 판매망을 가진 유통망 공략
 - 브라질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은 중소기업체들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소수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음. 많은 유통업체들이 아직까지 부품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브라질 시장에 맞는 부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다. 2억 인구를 기반으로 화장품 시장 개척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구 2억 850만 명의 브라질 화장품 및 개인청결용품 시장규모는 세계 4위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하고 있음
- 색조화장품 중심에서 피부관리 제품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음
- 한국 화장품 간에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 대비 미개척 시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화장품·개인위생용품 시장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
 - 중남미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브라질의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 시장은 세계 4위 규모로서, 2017년 경제침체 속에서도 전년 대비 3.2% 증가한 321억 달러에 달함
 - 브라질의 화장품·개인위생용품 시장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도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브라질 화장품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브라질 화장품 시장	24,555	27,595	30,512	30,287	31,140	32,129
전년 대비 시장 증가율	14.5	12.4	10.6	-0.7	2.8	3.2
브라질 경제성장률	1.9	3.0	0.5	-3.8	-3.6	0.3
세계시장 내 비중	6.9(3)	7.4(3)	7.8(3)	7.4(3)	7.3(4)	7.2(4)

주: ()는 세계 화장품 시장 내 순위

자료원: Euromonitor

- K-Beauty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 수입증가 추세
 - 고율의 관세와 각종 간접세로 인해 한국 화장품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스크팩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늘고 있음
 - 2017년 브라질의 對한국 화장품 수입은 전년 대비 28.7% 증가한 1억 1,020만 달러였으며, 그중에서도 피부관리제품의 수입이 전년 대비 61% 증가함

[브라질의 對한국 화장품 수입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對한국 수입액	51.1	54.2	102.1	85.6	110.2
전년 대비 수입 증가율	-46.4	6.1	88.4	-16.2	28.7
수입시장 내 비중(순위)	0.12(26)	0.16(27)	0.32(20)	0.38(19)	0.33(22)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브라질 시장 진입장벽은 인증제도가 아니라 가격, 시장진입을 위해 공격적인 가격 전략 수립 필요
 - 브라질은 인증 취득이 어려워서 진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실제 현지 화장품 전문 바이어 중 인증이 문제가 되어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보다는 고율의 세금 때문에 바이어가 요구하는 가격을 맞추지 못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관세 이외에 공업세, 유통세 등 각종 간접세가 추가됨을 고려해야 함
 - 현재 브라질에서 시판 중인 한국 A사 제품의 가격은 한국 소매가격보다 6~8배 높음

[화장품 수입관세 및 내국세 부과현황]

(단위: %)

HS Code	품목	수입세 (II)	공업세 (IPI)	사회기여세 (PIS/PASEP)	사회보장세 (COFINS)	주유통세* (ICMS)
3304.10.00	입술 메이크업제품	18	22	2.2	10.3	25
3304.20.10	눈화장 제품	18	22	2.2	10.3	25
3304.30.00	매니큐어 페디큐어	18	22	2.2	10.3	25
3304.91.00	콤팩트 페이스 파우더	18	22	2.2	10.3	25
3304.99.10	영양크림, 로션, 토닉	18	22	2.2	10.3	25
3305.10.00	샴푸	18	7	2.2	10.3	18
3305.20.00	스트레이트 퍼머제	18	22	2.2	10.3	25
3305.30.00	헤어스프레이	18	22	2.2	10.3	25
3401.11.10	약용비누	18	5	1.65	7.6	25
3401.20.10	화장비누	18	5	2.2	10.3	25
3401.30.00	액상·크림타입 클렌저	18	10	1.65	7.6	25

주: 주유통세(ICMS)의 경우는 São Paulo주 기준, 주마다 상이함

자료원: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조사

- * 수입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향후 선납세금공제가 가능하지만 수입업체, 지역에 따라 변동 가능
- * 해외운송비를 브라질 업체에서 부담할 경우 유통세(ICMS)가 30~40% 정도 증가함
- * 세금 외 물류(필요시 냉장컨테이너 비용 등), 창고비, 판관비 등도 추가로 고려해야 함

- 제품 자체의 혁신성과 품질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활동 전개
 - 브라질의 한류팬은 구매력이 낮은 10~20대 초반의 여성 인구에 집중되어 있음
 - 높은 간접세율로 인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한국 화장품의 마케팅에 한류를 활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제품 자체의 혁신성과 품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소비자 인식 변화로 피부관리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 브라질 시장은 전통적으로 피부관리제품이 안되고 색조화장품이 강세였으나, 최근 피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초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들어 마스크팩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라. 인구고령화와 풍토병 창궐로 의약품 수요 지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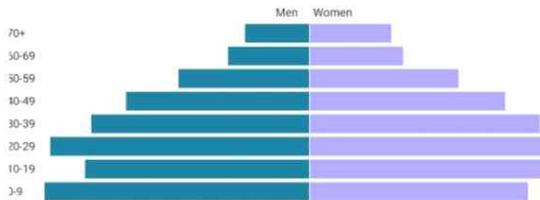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브라질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7년 세계 6위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하는 분야
 - * 2021년까지 약 54억 7,720만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인병 치료제와 모기 매개 전염병에 대한 백신 수요 꾸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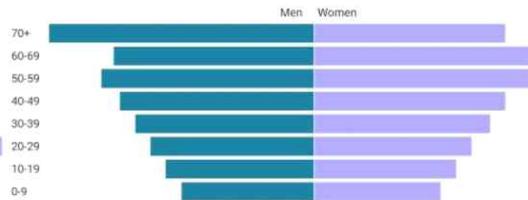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 치료 의약품 수요 증가
 -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2026년 3,660만 명(인구의 16.6%), 2036년 5,000만 명(22.2%)이 될 전망이며, 2060년에는 70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커질 것으로 전망됨
 - * 2017년 기준, 브라질 인구의 약 12%인 2,490만 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집계됨(2000년 8%, 1,420만 명)
 - 세계 10대 당뇨병 환자 보유국이며, 비만, 고혈압 등 성인병 환자 지속 증가추세

Population pyramid (2010)



Population pyramid (2060)



자료원: The Brazilian Report

- 뎅기, 지카, 치쿤구니아 등 모기 매개 전염병 창궐로 인해 관련 백신과 진단키트 수요 지속 증가
 - 2018년 8월 현재 뎅기열 감염 19만 9천 건, 치쿤구니아 감염 7만 2,100건, 지카바이러스 감염 7천 건 발생
 - 황열병 창궐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간 중 576명 감염, 184명 사망,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간 중 723명 감염, 237명 사망
- 2017년 민관합동개발 프로그램(PDP) 재개로 의약품 시장 진출환경 개선
 - PDP 대상품목에는 52종의 의약품이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기업 중에도 브라질 국영 연구소와 함께 PDP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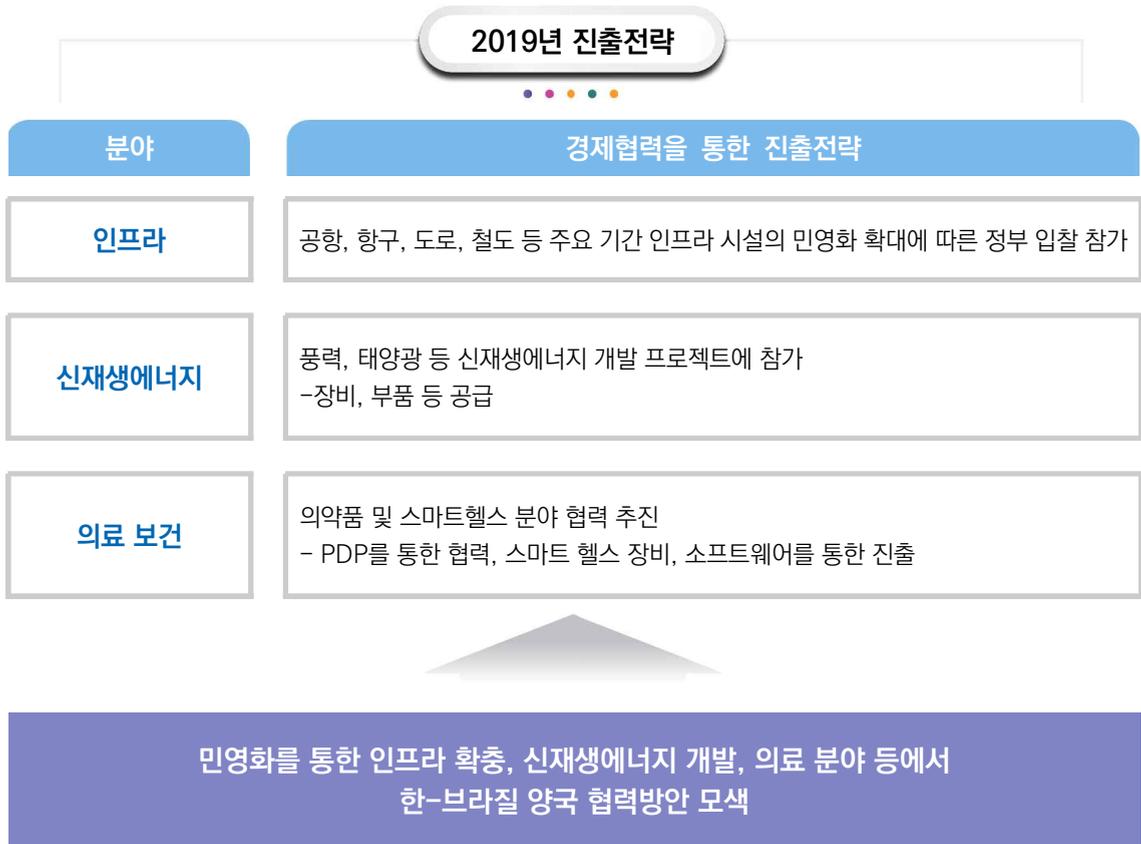
[민관합동개발 프로그램(Productive Development Policy, PDP)]

- 민간 제약회사와 브라질 국영 연구소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민간에서 국영연구소로 기술을 이전하여 생산하는 경우,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최장 10년까지 독점 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
- 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브라질 정부가 민간투자와 외국기업의 기술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정부 승인을 받은 PDP 프로그램 중 브라질 민간기업은 약 84%, 외국기업은 약 16%를 차지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PDP 제도 활용 등 현지기업과 협력을 통해 진출
 - 브라질 국영연구소와 공동으로 PDP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연방정부 운영 의료보험 의약품 시장 독점 공급권 확보 가능
 - 완제품은 대형 유통망을 파트너로 잡는 것이 시장진출의 관건
- 비만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조식품, 당뇨병, 고혈압 등의 성인병 치료제 수요 증가
 - 최근 10년간 브라질의 비만인구는 60% 증가했으며, 고혈압 환자는 인구의 1/3에 달하고, 당뇨병 환자 수는 세계 10대 수준으로 관련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치과용품과 정형외과용 제품 등도 진출 가능성이 큰 분야
- 모기 매개 전염병과 풍토병 창궐에 따른 진단키트와 백신제품 유망
 - 뎅기, 지카, 치쿤구니아 등 모기 매개 전염병 창궐로 인해 관련 백신과 진단키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 브라질 연방정부는 아동에게는 11개 백신, 성인에게는 19개 백신의 무료 접종을 제공

3. 한-브라질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가. 정부 발주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참가를 통한 협력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브라질 정부는 기간 인프라의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 추진
 -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망 등 대부분의 주요 기간 인프라가 노후하고 열악한 편으로 보수 또는 신규 건설이 시급한 상황.
- 정부 예산 부족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
 - * 중국 등 외국기업 다수가 지분 인수, M&A 등을 통해 전력 등 인프라 분야에 진출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8~2019년 2년간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을 통해 확보한 자원 540억 헤알이 에너지, 보건 등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에 사용될 전망

- 2018년에 우선적으로 230억 헤알이 투입(140억 헤알: 에너지 / 90억 헤알: 보건·교통·물류)
- 540억 헤알 중 60% 이상(약 326억 헤알)이 풍력 및 태양광 등 발전 및 송배전 프로젝트에 투입 예정
- 브라질 전력업체들은 여타 인프라 분야보다 민간자본 참여가 커,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책 변화에 비교적 동요가 적을 것으로 전망
 - 2017년 실시된 에너지 경매에서 유럽 우수기업 참여
 - 단, 보건위생 및 가스 분야는 공기업이 많아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물류, 도로, 철도, 수로 건설 프로젝트도 증가 전망
- 인프라 시장 활성화는 기준금리(SELIC) 인하 지속과 밀접한 관계. 금리가 낮아져 BNDES는 물론 일반은행 대출을 통한 투자자금 마련이 수월해짐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브라질 정부 발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에 참가
 - 브라질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 또는 사업 수주기업에 기계장비, 중장비 등 건설장비 공급방안 모색

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브라질은 수력 발전이 국가 전력생산의 주에너지원인 68.1%이나 지난 몇년간 브라질 전역의 강수량이 감소
 - 수력 발전을 통한 전력수급 차질, 전기료 급등 등으로 전력 생산방식의 다각화 필요성
 -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요 증가
- 브라질은 국토 대부분이 적도와 남회귀선 사이에 위치, 풍부한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에 매우 유리한 조건 보유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04년 브라질 정부는 'PROINFA'라는 이름의 대체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풍력 에너지와 함께 태양에너지 개발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선정
 - 태양에너지 발전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동안 풍력에너지 위주로 개발되어 왔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브라질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함. 2016년 관련 법령 정비로 태양에너지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 * 브라질 국가전력공사(ANEEL)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브라질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137만 9,373KW로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0.86%를 점유, 풍력 발전량은 1,342만 3,139KW로 8.34% 차지

- 브라질 국영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풍력업체에 저금리 대출 지원
 - 동 혜택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브라질에 현지법인 보유 및 국산부품 의무 사용비중인 로컬콘텐츠 규정 준수 필요
- 2018년 10월 기준 브라질에는 545개의 풍력발전소가 있으며 세계 10대 풍력 발전설비국 대열에 진입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브라질 정부가 발주하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 참가를 통해 진출
 - 태양광 발전장비(인버터, 모듈세트, 셀 등)
 - 풍력 발전장비(터빈 및 기타 풍력 발전용 장비 및 부품)

다. 부족한 의약품 공급 위해 국영제약사와 협력 확대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브라질 의약품 시장은 2018~2021년 연평균 3.5%의 성장을 유지, 2021년에 3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7년 브라질은 66억 달러 상당의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함
- 브라질 디지털 헬스 시장은 2015~2024년 연평균 28%의 높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구 2억을 보유한 브라질은 최근 수년간 중산층 소비자 및 노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 의료·건강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음
 - 건강 유지 및 질병 치료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는 노령인구가 연간 3%씩 늘고 있음
 - * 국립지리통계원(IBGE)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브라질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3,020만 명으로 2012~2017년 사이 18.8% 증가함. 고령인구 중 여성이 56%, 남성이 44%를 차지
 -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비만, 고혈압 등과 같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증가, 이와 관련된 치료제 수요도 증가
- 브라질은 최근 수년간 지카 바이러스, 뎅기열, 황열병 등 풍토병, 전염병 발생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
 - 한국기업 젠바디는 지카 바이러스, 황열병 등을 위한 진단키트 브라질에 수출

- 브라질 스마트헬스 시장의 경우, 전자건강기록,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이 민간형 병원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으나 브라질 공공 의료시설의 경우 스마트 헬스 기술 사용이 전체의 30% 미만으로 밝혀짐
 - 브라질 공공의료 분야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비싼 첨단기술 도입에 애로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인구를 위한 품목 집중 발굴
 - 치과, 정형외과용 제품 등 기존 수입이 많은 품목에 대한 진출 확대
- 지카 바이러스, 뎅기열 등 풍토병, 전염병 확산에 따른 진단장비 수요 증가
 - 휴대용 진단키트(Point of Care) 제품 등 신규 유망품목 발굴
- 로컬기업과 협력강화, 민관 의약품 생산협력정책(PDP)을 활용한 시장진출
 - 로컬업체와 협력을 통해 ANVISA(위생감시국) 인증 획득시간 단축
 - 브라질 국영제약사와 협력강화, 공동 R&D 등을 통한 PDP 프로그램 참여 추진 가능
- 브라질 공공의료 시설을 중심으로 웨어러블 기기,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 헬스 제품 및 기술 진출방안 모색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품목명 1	HS Code	8708.40 (기어박스)	수입관세율(%)	0~18
자동차부품 (기어박스)	수입액('17/US\$백만)	1,855.179	대한수입액('17/US\$백만)	214.160
	선정사유	- 자동차부품은 對브라질 수출품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어박스는 수출 1위 부품임		
	시장동향	- 브라질 자동차부품산업협회(Sindipeças)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산업은 2018년에 접어들어 회복세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수입이 전년 대비 약 14.1% 증가한 14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19년의 경우, 자동차부품 수입이 2018년 대비 약 10% 증가한 15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기어박스(8708.40.90)는 2014년부터 남미공동관세 적용 예외 품목(Ex-Tarifario)에 포함되어 수입관세가 기존 18%에서 2%로 인하됐으며 현재도 동 세율 적용 중		
	경쟁동향	- 2017년 기준 동 제품의 수입대상국 중 한국은 4위로 점유율 11.5%를 차지, 전년 대비 수입액이 약 90% 증가 - 최대 수입국은 일본(18.87%)이며 아르헨티나(15.6%) 미국(12.7%) 등이 뒤를 이음		
	진출방안	- 브라질 현지 완성차기업들과 GP 사업, 오토멕(Automec, 2019년 4월 개최) 자동차부품 전시회 한국관 지원 등을 통해 관련 비즈니스 기회 발굴		
품목명 2	HS Code	8542.32 (메모리)	수입관세율(%)	0~8
반도체 (메모리)	수입액('17/US\$백만)	1,443.714	대한수입액('17/US\$백만)	980.555
	선정사유	- 한국산 메모리 제품은 브라질의 전체 메모리 수입 시장 1위, 점유율 68% 차지		
	시장동향	- 컴퓨터의 브라질 현지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부품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메모리 수요는 높음 - 현재 브라질에서 컴퓨터와 노트북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 판매 상승으로 이어짐 - 중산층의 소득증가로 IT 제품 수요가 증가, 이에 사용되는 메모리 제품 수요 상승. 한국 브랜드 컴퓨터 및 노트북에 사용되는 메모리는 대부분 한국산임 -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협회(Eletros)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브라질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은 5,21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		
	경쟁동향	- 2017년 기준 동 제품의 對브라질 수입 중 한국은 1위 수입국으로 점유율 68% 차지 - 2위 수입국은 중국(11.3%), 3위는 대만(8%)		
	진출방안	- Eletrolar Show 등과 같은 남미 최대 B2B IT 가전 전시회 참가를 통해 對브라질 비즈니스 기회 발굴		
품목명 3	HS Code	3822.00 (진단용 시약)	수입관세율(%)	0~2
진단용 시약	수입액('17/US\$백만)	357.885	대한수입액('17/US\$백만)	58.186
	선정사유	혈액이나 소변 반응 등을 통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은 지카 바이러스 등 전염병 증가에 따라 수요 증가		
	시장동향	- 아마존 등 적도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성 기후를 보유한 브라질은 모기 등으로 인한 전염병이 자주 발생함. 그러나 주요 발생지역인 북부 및 북동부에는 검사장비, 진단시약 등이 대거 부족할 상황 - 최근에는 남부 및 남동부 도시 지역에서도 전염병이 발생, 진단시약 수요가 증가		

		- 한국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6년 2.8%에서 2017년 16%로 13.2%p 증가		
	경쟁동향	- 2017년 기준 동 제품의 수입대상국 중 한국은 3위로 점유율 16.3% 차지 - 1위는 미국(40.1%), 2위는 독일(19%)		
	진출방안	- 브라질 공공제약사 등과 협력(Productive Development Partnership, PDP)을 통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모색		
품목명 4	HS Code	8543.70 (LED 조명)	수입관세율(%)	0~18
LED 조명	수입액('17/US\$백만)	286.983	대한수입액('17/US\$백만)	11.053
	선정사유	- 전력소비량 증가로 인한 전력기자재 및 송·배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인 LED 조명 설치 필요성 확대		
	시장동향	- 브라질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반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중 - 2015년 기준 브라질에는 1,500만 개의 가로등이 있으나 에너지 효율이 낮은 나트륨 전구가 62.93%, 수은전구가 31.84%를 차지 - 연방정부가 공공조명을 형광등이나 LED로 교체해야 하는 법을 발표함에 따라 LED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경쟁동향	- 2017년 기준 동 제품 수입국 중 한국은 브라질의 8위 수입국으로 점유율 3.85%를 차지하고 있음 - 최대 수입국은 중국(41.26%)으로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 2위 미국(8.4%), 3위 멕시코(7.8%), 4위 폴란드(6.7%), 5위 독일(5.3%), 6위 일본(5.2%), 7위 대만(4%) - 중국에 비해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가정용 LED 시장은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미국 Philips는 브라질에 LED 조명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 생산 중이며 GE(General Electric)는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공장을 상파울루주 타우바테시에 건설해 가동 중임		
	진출방안	- 공공 조명의 경우, 브라질 현지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PPP 형태의 공개입찰 참가 * LED 조명은 브라질 INMETRO(국가품질규격관리원)의 강제인증 항목에 포함됨에 유의 - 지사화 사업 및 윌드채프 사업을 통한 전력 기자재 및 LED 기업(비츠로테크, 아모렉스, 인텍전기전자 등) 지원		
품목명 5	HS Code	8525.80 (CCTV 카메라)	수입관세율(%)	0~20
CCTV 카메라	수입액('17/US\$백만)	93.811	대한수입액('17/US\$백만)	1.794
	선정사유	- 개인 신변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보안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전자보안장비 수요 확대		
	시장동향	- 2017년 브라질의 전자보안장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3% 성장한 60억 헤알로, 경기침체 속에서도 성장한 몇 안되는 산업 분야임 - 브라질의 보안장비시장은 최근 10년 이상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성장률이 둔화됨. 그러나 브라질 경기침체와 전반적인 산업 위축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됨. 2018년에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8% 성장이 예상됨 - 현재 브라질 전자보안장비 구매의 85%는 상업용 등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강력범죄와 폭력에 대비해 가정용 CCTV, 경보기 등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경쟁동향	- 2017년 기준 동 제품 수입국 중 한국은 8위로 점유율 1.9%를 보유 - 2017년에는 한국제품 수입이 약 두 배로 증가 - 최대 수입국은 중국(56.4%)이며, 2위 미국(10%), 3위 일본(6.6%), 4위 멕시코(5.6%), 5위 태국(3.4%), 6위 대만(2.6%), 7위 독일(2%) 등		
	진출방안	- 한국산 CCTV나 보안장비의 경우 중국산 및 현지 생산업체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첨단 기술 수요가 높은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함. 특히 브라질 민간 보안산업 분야는 대기업 독점 형태가 아닌 여러 공급업체가 세분화된 시장이므로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한 한국제품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됨		

교육서비스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억 인구를 보유한 브라질 교육서비스는 시장규모 대비 교육수준이 낮아 향후 높은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평가됨 - 경제·사회 개발정도가 낮은 북부 및 북동부 지역의 교육시장 성장 잠재력 다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교육기업 Ser Educacional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브라질의 고등교육 시장규모는 320억 헤알로, 세계 민간고등교육 시장 5위 규모임 - 2002~2013년 브라질 이러닝 시장 35.15% 성장 - 2012년 18~24세 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17.8%, 2020년 정부 목표치 33%에 비해 저조한 수준 - 학교 간 교육품질 차이가 매우 큼. 외국기업 투자를 기다리는 학교 다수 존재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ureate, Devry 등 미국 교육그룹이 브라질에 진출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마다 소규모 고등교육기관이 다수 존재,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용이. 외국계 그룹의 브라질 대학 인수를 통한 고품질 교육 공급 가능
게임서비스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2억 인구의 30%인 6,000만 명이 게임을 즐기며 유저의 대다수가 10~30대임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기관인 GFK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브라질 게임시장 규모는 10억 헤알로 추산 - 게임산업 중 콘솔게임이 가장 규모가 크며,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순으로 인기가 있음 - 시장성향은 북미와 유럽과 비슷하나 아시아 시장처럼 e-sport에 열광함 - 리그 오브 레전드, DOTA2 등이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한국기업 제페포의 슈팅게임 '포인트 블랭크'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솔게임의 경우, 초기에는 소니의 PS2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닌텐도의 Wii도 높은 인기를 누림. 2013년 무렵 마이크로소프트의 XBox가 PS2의 절반 가격에 판매되면서 시장구조가 바뀜. 이후 소니와 닌텐도는 높은 수입세금과 외산 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에 의해 브라질 시장에서 철수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게임업체와 제휴를 통한 브라질 시장 진출방안 모색 -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 제페포사의 온라인게임 '포인트 블랭크'의 경우, 한인이 운영하는 게임업체 온게임을 통해 서비스됨
물류서비스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의 경우 물류비용은 높으나, 제3자 물류비중은 낮은 편으로, 전문적인 물류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업체 KPMG에 따르면, 2014년 브라질 물류시장 규모는 전체 GDP의 0.9%에 해당하는 499억 헤알 보유 - 최근 경제회복과 더불어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 물류서비스도 증가 - 도로·철도 등 낙후된 교통인프라로 인해 물류비용 상승. 이에 따라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기업 수요 증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HL과 같은 외국계 물류업체 진출 - 다수의 물류 오퍼레이터, 운송업체, 보관업체 등이 존재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물류업체와 제휴를 통한 브라질 시장 진출방안 모색

□ 기간제 맞춤형 서비스 사업

- 지사화 사업 : 약 70개사
 - 품목별 전문화된 현지 전담직원을 통한 제약,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 유망품목의 브라질 시장 진출 지원
- 월드챔프 사업 : 총 15개사
 - 기술력 있는 우수 중견기업의 전시회, 광고 등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 브라질 상파울루 자동차부품 전시회(AUTOMECH)

- 남미 최대규모 자동차부품 전시회 한국관 구축
 - 기간 : 2019. 4. 23~27(5일간)
 - 장소 : 브라질 상파울루 Sao Paulo Expo 전시장
 - 전시품목 : 연료펌프, 베어링, 연마제 등 각종 자동차 부품 및 용품

□ 한-Mercosur 산업협력포럼 및 상담회

- Mercosur 지역 주요 기관 및 바이어 초청 포럼 및 1:1 상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년 상반기/한국
 - 내용 : Mercosur 지역 투자진출 전략, 시장소개, 보건 프로젝트 상담 등

□ K-Beauty 시장개척단

- 브라질 주요 화장품 바이어 방한 초청 세미나 및 1:1 상담회 개최
 - 기간 : 2019년 상반기
 - 내용 : 브라질 화장품 시장동향, 인증제도 소개 및 바이어 상담

□ 브라질 주요 유통망 진출사업

- 브라질 주요 유통망 진출을 위한 한국 상품 홍보관 구축사업
 - 일시 및 장소 : 2019년 상반기/주요 유통 전시회장

- 내용 : 한국 유망 소비재 기업의 카탈로그 및 샘플을 활용하여 브라질 주요 전시회에 한국 상품 홍보관 구성 및 상품 홍보 대행

□ 한국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과 1:1 채용상담회 개최
 - 일시 : 2019년 상반기 중
 - 내용 : 인사담당자, 취업성공 청년 특강, 1:1 채용상담 진행
- 취업 관련 주요 정보 지속 발굴 및 공유
 - 구인수요 발굴 및 전파(월드잡 포털 게재), 구직청년 DB 관리(무역관 자체)
 - 취업비자 발급,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등 취업 관련 주요 정보 안내 강화

□ 알기 쉬운 투자진출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알기 쉬운 투자진출 종합 가이드북 2019년 개정판 제작 및 배포
 - 2015년 이후 매년 제작한 노무(2015)*, 의약·화장품 인증(2016), 세무(2017), 전자/무선기기 인증(2018) 가이드북을 최신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업데이트한 후 제작 및 배포 예정
 - * 브라질 노동법 개정 이후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 예정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제38대 대통령 취임	2019년 1월 1일	-
한-브라질 수교 60주년	2019년 10월 31일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브라질 회계연도 시작	2019 1월 1일	-
한-메르코수르 TA	-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CouroModas	2019년 1월 14~17일	신발, 가죽제품
Automec	2019년 4월 23~27일	자동차부품
APAS	2019년 5월 6~9일	식품, 유통산업
Hospitalar	2019년 5월 21~24일	의료장비
Exposec	2019년 5월 21~23일	보안장비
FCE	2019년 5월 21~23일	미용, 화장품
Fispal	2019년 6월 25~28일	식품
Beauty Fair	2019년 9월 중	미용, 화장품

담당자

상파울루 무역관 한연희

Tel (55-11)3175-3030

직책 관장

Email yolanda@kotra.or.kr

상파울루 무역관 최선옥

Tel (55-11)3175-3030

직책 과장

Email cristina@kotra.com.br

2019 국별 진출전략

브라질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